

WEBVTT

00:00:31.777 --> 00:00:37.228
-오늘은 증명사진 면접 메이크업에
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

00:00:45.926 --> 00:00:51.043
우리 증명사진 면접 메이크업,
제가 이름을 이렇게 줬는데요.

00:00:51.143 --> 00:00:55.147
면접을 볼 때 가장
중요한 거는 뭘까요?

00:00:55.247 --> 00:00:56.180
-첫인상.

00:00:56.280 --> 00:00:58.034
-첫인상.

00:00:58.134 --> 00:01:01.738
증명사진이라는 게 나를
또 대변하는 거잖아요.

00:01:01.838 --> 00:01:06.466
너무 꾸민 것 같지 않고 나의
얼굴, 본연의 그대로의 모습을

00:01:06.566 --> 00:01:11.403
사진으로 담아내는 건데 이
면접을 볼 때도 그런

00:01:11.503 --> 00:01:13.886
메이크업이 필요하지 않을까
생각을 해봤어요.

00:01:13.986 --> 00:01:19.337
일단 첫인상은 모든 이들에게
중요한 결정을 지을 수 있는

00:01:19.437 --> 00:01:22.206
수단과 노력인 것 같아요,
첫인상만 가지고도.

00:01:22.306 --> 00:01:27.455
그래서 베이스는 색을 보정을
하면서 톤을 잡아주고요.

00:01:27.555 --> 00:01:32.419
부분적으로 내 얼굴에
보완점만 보충해준다면

00:01:32.519 --> 00:01:36.220
베이스는 크게 무리 없이
나의 본연의 피부 결을

00:01:36.320 --> 00:01:38.631
아름답게 보여줄 수
있을 것 같고요.

00:01:38.731 --> 00:01:42.028
아이 메이크업 같은 경우는
기본에 충실 된, 진짜.

00:01:42.128 --> 00:01:45.570
나의 눈매를 또렷하게 살려줄
수 있는 기본에 충실한

증명사진 면접 메이크업

00:01:45.670 --> 00:01:47.725
아이 메이크업을 하면
좋을 것 같아요.

00:01:47.825 --> 00:01:51.565
컬러를 너무 요란하게
많이 쓰는 것보다는

00:01:51.665 --> 00:01:54.647
포인트 될 수 있는 원 컬러
새도우를 이용하는 것도

00:01:54.747 --> 00:01:56.406
되게 좋을 것 같고요.

00:01:56.506 --> 00:02:00.312
치크는 은은하게 혈색을
보여줄 수 있는

00:02:00.412 --> 00:02:04.021
저는 오늘 크림 블러셔를
한번 선택을 해봤습니다.

00:02:04.121 --> 00:02:05.924
이따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

00:02:06.024 --> 00:02:08.557
잠시 후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

00:02:08.657 --> 00:02:11.358
그다음에 립은 조금 튀지 않으면서

00:02:11.458 --> 00:02:16.980
하지만 건강해 보이면서 좀
자신감을 돋겨줄 수 있는

00:02:17.080 --> 00:02:19.997
약간 선홍빛이 들어가 있는
약간 붉은 계열이 들어가 있는

00:02:20.097 --> 00:02:24.197
립스틱을 선택해서 메이크업을
완성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.

00:02:24.297 --> 00:02:28.947
먼저 우리 아름다운 여성분에게
스킨케어 라인을 발라서

00:02:29.047 --> 00:02:31.310
촉촉하게 피부를 준비를 시켜냈고요.

00:02:31.410 --> 00:02:37.036
그다음 단계인 뷰어를 한번
사용해보도록 하겠습니다.

00:02:37.136 --> 00:02:40.252
턱을 살짝 든 상태에서
아래를 보시고요.

00:02:45.967 --> 00:02:53.770
레쉬를 또렷하게 올려준 상태에서
그루밍을 정리한 상태에서

00:02:53.870 --> 00:02:55.815
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

00:02:55.915 --> 00:03:01.603
먼저 증명사진 메이크업에서는

예전에 나왔던

00:03:01.703 --> 00:03:05.349
물광처럼 흐르듯이 과한
윤기 나는 느낌보다는

00:03:05.449 --> 00:03:08.856
자연스러운 내 피부의 윤기를
보여주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.

00:03:08.956 --> 00:03:13.426
그래서 제가 선택한 거는
은은한 펄감이 들어가 있는

00:03:13.526 --> 00:03:17.686
피부에 결을 살려줄 수 있는
흔히 이제 펄 베이스라고

00:03:17.786 --> 00:03:19.317
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.

00:03:19.417 --> 00:03:24.252
여기 보면 약간 진주빛
펄감이 들어가 있는

00:03:24.352 --> 00:03:29.483
펄 베이스를 한번 사용해서
윤기를 줘보도록 할게요.

00:03:29.979 --> 00:03:37.963
이때는 윤기를 살려줄 수 있는
브러쉬를 사용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.

00:03:39.866 --> 00:03:44.103
도구를 이용하면 이
손의 미세함도 있겠지만

00:03:44.203 --> 00:03:47.320
훨씬 더 디테일하게 윤기를
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.

00:03:47.420 --> 00:03:52.432
지금 보면 진주빛 펄감이 들어가
있는 펄 베이스라는 걸 이용해서

00:03:53.565 --> 00:03:57.731
제가 스킨에 자연스러운
윤기를 표현하고 있어요.

00:04:01.576 --> 00:04:03.015
턱 라인까지.

00:04:08.398 --> 00:04:10.419
일단 거울 한번 확인해보면요.

00:04:10.519 --> 00:04:13.238
자연스러운 윤기가 나는지 턱을
한번 살짝 들어서도 보시고

00:04:13.338 --> 00:04:14.556
움직여서도 보세요.

00:04:14.656 --> 00:04:16.090
윤기가 좀 보이나요?

00:04:16.190 --> 00:04:19.725
이렇게 준비되어있는 스킨에
저는 미네랄라이즈

증명사진 면접 메이크업

00:04:19.825 --> 00:04:22.804
파운데이션이라는 걸 사용할 건데요.

00:04:23.400 --> 00:04:26.878
제가 지금 사용할
파운데이션 같은 경우도

00:04:26.978 --> 00:04:30.188
파운데이션, 리퀴드
파운데이션이지만 이렇게 좀

00:04:30.288 --> 00:04:32.849
자연스러운 윤기감을 포함한
파운데이션이에요.

00:04:32.949 --> 00:04:35.640
그래서 베이스랑 궁합이
되게 잘 맞을 것 같고

00:04:35.740 --> 00:04:38.977
너무 과하지 않는 하지만
내 피부가 원래 좀

00:04:39.077 --> 00:04:42.181
좋았던 것처럼 보여지는 스킨을
보여주는 파운데이션이라고

00:04:42.281 --> 00:04:44.682
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.

00:04:44.782 --> 00:04:50.046
액상형의 파운데이션을 브러쉬를
이용해서 발라보도록 할게요.

00:04:52.181 --> 00:04:55.115
일단 이런 리퀴드 파운데이션을
브러쉬로 블렌딩하는

00:04:55.215 --> 00:04:57.520
이런 동글동글한
브러쉬를 바를 때는요.

00:04:57.620 --> 00:05:00.406
웬만하면 턱에서부터 시작하시면
안전하게 메이크업을

00:05:00.506 --> 00:05:01.887
완성하실 수 있습니다.

00:05:01.987 --> 00:05:07.077
고개를 살짝 돌려보시고 필요한 부분에
정확하게 집어놓은 다음에요.

00:05:07.177 --> 00:05:10.180
블렌딩 브러쉬는 그냥
이렇게 굴려주시면 돼요.

00:05:11.767 --> 00:05:15.241
이런 윤기 나는 파운데이션의 특징은

00:05:15.341 --> 00:05:18.578
절대 두꺼워 보이지
않는다는 거예요.

00:05:18.678 --> 00:05:23.277
그러면서 자연스러운 피부에
윤기를 제공함으로써

증명사진 면접 메이크업

00:05:23.377 --> 00:05:30.429
매끄럽고 광나는 예쁜 스킨을
쉽게 연출하실 수 있습니다.

00:05:30.529 --> 00:05:33.502
콧망울 근처, 눈두덩이.

00:05:39.256 --> 00:05:45.679
하고 항상 파운데이션 브러쉬로
피부 메이크업을 완성하실 때는

00:05:45.779 --> 00:05:50.739
체크하셔야 될 부분이 이 턱이랑 이
목 라인을 발라주시는 거예요.

00:05:50.839 --> 00:05:52.437
그래서 색깔의 차이가
많이 나지 않게끔

00:05:52.577 --> 00:05:55.828
발라주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.

00:05:56.874 --> 00:06:02.147
색깔은 목 색깔에 비해서 얼굴을
반 톤 정도 화사하게 하시면

00:06:02.247 --> 00:06:07.795
하루 종일 좀 어둡지 않은 화사한
피부 톤을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.

00:06:09.166 --> 00:06:12.798
일단 목까지 발라보도록 하고요.

00:06:13.904 --> 00:06:16.647
이렇게 준비되어있는 스킨
톤에 필요한 부분에

00:06:16.747 --> 00:06:19.429
한 번 더 리터치 하고요.

00:06:21.296 --> 00:06:24.813
전체적으로 되게 피부가
깨끗하신 편이긴 해요.

00:06:24.913 --> 00:06:28.682
이 상태에서 저는 컨실러를 이용해서

00:06:28.782 --> 00:06:31.247
여기 스팟 하나를
가리도록 하겠습니다.

00:06:35.744 --> 00:06:43.750
이런 스팟 컨실러를 이용해서
자연스럽게 커버를 해주고요.

00:06:50.724 --> 00:06:56.808
그다음에 눈 밑에는 컨실러
라인 중에서도 조금 밝은

00:06:56.908 --> 00:07:01.250
컨실러를 이용해서 눈 밑을
보정해보도록 할게요.

00:07:07.175 --> 00:07:12.570
어두운 눈 밑 부분을 컨실러로
이렇게 정리를 합니다.

00:07:21.189 --> 00:07:24.768
여기까지 페이스 메이크업이
완성이 됐고요.

00:07:24.868 --> 00:07:28.831
다음은 브로우 메이크업을 한번
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.

00:07:28.931 --> 00:07:32.295
일단 우리 여성분의
브로우를 봤을 때

00:07:32.395 --> 00:07:35.466
깔끔하게 정리가 되어있는
브로우를 가지고 계시네요.

00:07:35.566 --> 00:07:40.428
예쁘게 정리되어있는 눈썹에 제가
바탕색을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.

00:07:40.528 --> 00:07:46.330
넓적한 브러쉬를 이용해서 제가
중간톤의 색도우를 이용해서

00:07:46.430 --> 00:07:51.750
반영구 화장의 약간 붉은
빛을 가릴 수 있는 거예요.

00:07:51.850 --> 00:07:54.942
일반 여성분들이 쓰는 브로우
컬러는 눈썹이 잘못하면

00:07:55.042 --> 00:07:59.379
진해져 보일 수 있기 때문에
일반여성들이 쓰는 컬러보다는

00:07:59.479 --> 00:08:02.641
반 톤 정도 밝은 컬러를 선택하시는
게 안전하게 그릴 수 있는

00:08:02.741 --> 00:08:04.759
방법일 것 같아요.

00:08:04.859 --> 00:08:15.972
일단 90도로 세워서 사이사이에
색깔 톤을 다운시켜주고

00:08:22.357 --> 00:08:26.916
그다음에 일단 우리
여성분의 모발을 봤을 때

00:08:27.016 --> 00:08:28.403
염색 모발은 아닌 것 같아요.

00:08:28.503 --> 00:08:31.716
약간 블랙에 가까운 모발인데
제가 이런 회색빛이 나는

00:08:31.816 --> 00:08:36.048
펜슬을 이용해서 브로우를
완성해보도록 하겠습니다.

00:08:37.820 --> 00:08:42.388
사이사이를 메꿔주면서
붉은 부분을 가려주면서

00:08:49.433 --> 00:08:53.358
눈썹은 꼬리 방향은 귀 끝을 향해서

증명사진 면접 메이크업

00:08:53.458 --> 00:08:56.103
갈 수 있게끔 마무리를 해볼게요.

00:09:03.790 --> 00:09:09.499
본연의 눈썹에서 자연스러운
메이크업을 하시려면

00:09:09.599 --> 00:09:14.325
너무 인위적으로 눈썹의
모양을 바꾼다거나 하면

00:09:14.425 --> 00:09:17.619
다른 느낌이 좀 날 수 있으니까
면접 메이크업에서는 최대한

00:09:17.719 --> 00:09:21.692
자기 브로우의 개성을 살리는
게 안전할 것 같아요.

00:09:25.995 --> 00:09:33.643
이렇게 하고 나서 혹시나
조금 빼돌빼돌 안 예쁘게

00:09:33.743 --> 00:09:38.127
눈썹이 그려졌어도 면봉
하나로 정리하시면 됩니다.

00:09:38.227 --> 00:09:41.151
봤을 때 이렇게.

00:09:47.652 --> 00:09:51.092
깨끗하지 않은 부분을
면봉으로 정리하고요.

00:09:51.192 --> 00:09:54.445
길이만 살짝 더 연장을 해봤어요.

00:09:54.545 --> 00:09:59.254
그 상태에서 새도우를 바로
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.

00:09:59.354 --> 00:10:05.417
일단 눈매에 새도우를 많이
한 것 같지 않으면서도

00:10:05.517 --> 00:10:09.272
컬러의 매력을 보여주는 거는
이런 계열의 컬러인 것 같아요.

00:10:09.372 --> 00:10:11.022
색깔 한번 보여드릴게요.

00:10:11.122 --> 00:10:14.758
약간 살긋빛이 도는 것 같기도
하면서 브라운과 붉은색이

00:10:14.858 --> 00:10:17.183
살짝 섞인 이런 톤 있죠?

00:10:17.283 --> 00:10:21.711
누가 봐도 컬러가 너무 튀지
않는다는 느낌이 드는 컬러들.

00:10:21.811 --> 00:10:24.549
혹시 집에 이런 거 찾아보시면
다 있을 것 같아요.

00:10:24.649 --> 00:10:25.414
어때요?

00:10:25.514 --> 00:10:27.017
딱 봤을 때 너무 튀어 보이나요?

00:10:27.117 --> 00:10:27.609
-아니요.

00:10:27.709 --> 00:10:28.498
-그렇지 않죠?

00:10:28.598 --> 00:10:32.746
이런 동글동글한 브러쉬로 눈덩이
전체에 한 번 발라보도록 할게요.

00:10:32.846 --> 00:10:38.196
새도우를 바르는 위치는
모델의 눈을 만져봤을 때

00:10:38.296 --> 00:10:42.129
뼈 사이에 눈에 구멍을
확인하시면 되는데

00:10:42.229 --> 00:10:48.477
아, 이 정도가 나의 아이 홀
부분이구나를 확인하신 다음에

00:10:48.577 --> 00:10:53.067
그 안으로 반 원을 그려주면서
발라주시면 되는데

00:10:58.941 --> 00:11:03.150
색깔을 처음부터 진하게
발색하려고 하지 마시고요.

00:11:03.250 --> 00:11:13.809
일단 얇게 한번 펴 바르신 다음에
색깔을 좀 더 내야겠다.

00:11:13.909 --> 00:11:19.394
거울로 확인하신 다음에 한 번 더
레이어드 해서 발라주시면 돼요.

00:11:19.494 --> 00:11:21.165
떠보시고.

00:11:21.265 --> 00:11:22.474
거울 한번 볼게요.

00:11:22.574 --> 00:11:25.213
색깔이 은은하게 발색이
되는 것 같아요?

00:11:25.313 --> 00:11:29.247
여기에서부터 개인의 취향이
조금 중요할 것 같아요.

00:11:29.347 --> 00:11:32.029
원래 색조 메이크업을 좀
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

00:11:32.129 --> 00:11:36.546
같은 컬러를 덧바르실수록 색깔의
힘이 더 실어지는 거고요.

00:11:36.646 --> 00:11:38.823
컬러 메이크업을 많이

안 해보셨던 분들은

00:11:38.923 --> 00:11:41.934
지금 이정도만 해도 조금은
부담스러울 수 있거든요.

00:11:42.034 --> 00:11:44.957
평상시에 아이 메이크업
즐거하시나요?

00:11:45.057 --> 00:11:46.647
색조 메이크업은요?

00:11:46.747 --> 00:11:47.699
안 하시나요?

00:11:47.799 --> 00:11:49.584
그러면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.

00:11:49.684 --> 00:11:51.335
컬러는 한 번 정도만 발랐어요.

00:11:51.435 --> 00:11:56.372
다른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
컬러에 힘을 더 내고 싶을 때는

00:11:56.472 --> 00:12:00.761
한 번, 혹은 두 번 정도
덧발라주시는 거 추천드립니다.

00:12:00.861 --> 00:12:06.052
이 상태에서 아이라인으로
눈매를 또렷하게 해볼 건데요.

00:12:06.152 --> 00:12:10.110
이번에는 넓직한 아이브러쉬로요.

00:12:10.772 --> 00:12:14.722
브라운 계열에 이거를 젤
라이너라고 하는데요.

00:12:14.822 --> 00:12:17.693
젤 라이너를 사용해서 한번
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.

00:12:17.793 --> 00:12:22.473
우리 흔히 속 쌍꺼풀 눈매에는
라인 그리기가 굉장히 어려워요.

00:12:22.573 --> 00:12:25.513
범위를 어디 정도까지 해야
되는지 잘 모르겠고 할 때

00:12:25.613 --> 00:12:29.183
브라운 계열의 컬러를
이용하시면 좀 실수를 해도

00:12:29.283 --> 00:12:30.763
티가 많이 덜 나고요.

00:12:30.863 --> 00:12:33.819
깊어 보이면서 눈매를 또렷하게
표현할 수가 있거든요.

00:12:33.919 --> 00:12:38.028
이렇게 넓직한 브러쉬를 이용해서
한번 발라보도록 할게요.

00:12:38.823 --> 00:12:40.840
앞, 뒤로 묻힌 다음에.

00:12:41.611 --> 00:12:44.214
이제 라인을 그리실
때는 턱을 든 상태에서

00:12:44.314 --> 00:12:48.516
눈을 게슴츠레하게 뜨고
손거울을 확인하신 다음에

00:12:48.616 --> 00:12:52.163
브러쉬를 이용해서 정확하게
그려주시면 돼요.

00:12:52.263 --> 00:12:56.249
눈을 한 쪽눈만 감고
그리면 오히려 뭐랄까 좀

00:12:56.349 --> 00:12:57.843
균형 맞추기가 더 힘든 것 같아요.

00:12:57.943 --> 00:13:02.261
눈을 다 쓴 상태에서 턱을
들고 라인을 메꿔주시면서

00:13:02.361 --> 00:13:06.145
그리면 되는데 이렇게 넓직한
브러쉬는 오히려 조금 더

00:13:06.245 --> 00:13:07.341
쉽게 그릴 수 있는 것 같아요.

00:13:07.441 --> 00:13:11.281
옛날에는 되게 뾰족하고 얇은
브러쉬를 많이 썼잖아요.

00:13:11.381 --> 00:13:14.394
옛날에 많이 썼던
브러쉬가 이런 브러쉬인데

00:13:14.494 --> 00:13:17.522
오히려 이렇게 면을
이용하는 브러쉬는

00:13:17.622 --> 00:13:19.940
선을 그리기가 더 쉬운 것 같아요.

00:13:20.040 --> 00:13:22.639
찍고, 찍고, 찍고, 찍고.

00:13:24.168 --> 00:13:27.976
이런 식으로 넓은 면을 연결,
연결, 연결 시켜주는 겁니다.

00:13:28.076 --> 00:13:30.911
이렇게 한 번에 그리는
건 저도 어렵거든요.

00:13:31.011 --> 00:13:35.484
사이사이를 연결시켜준다는 느낌으로
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.

00:13:39.031 --> 00:13:42.527
일단 내가 내 얼굴에 그리는
방법을 알았다고 하면

00:13:42.627 --> 00:13:45.862

턱을 든 상태에서 아래를
보신 상태에서 그리면 되는데

00:13:45.962 --> 00:13:49.424
특히나 속쌍꺼풀은 좌우 대칭에
눈이 어디가 더 큰지를

00:13:49.524 --> 00:13:50.891
판단하시고요.

00:13:50.991 --> 00:13:53.324
큰 눈은 조금 얇게 그려주시고요.

00:13:53.424 --> 00:13:56.250
작은 눈매를 조금은 더
도톰하게 그려주시면 돼요.

00:13:56.350 --> 00:14:00.084
우리 일단 아름다운
여성분을 봤을 때는

00:14:00.184 --> 00:14:02.635
왼쪽 눈매가 조금은 더
크신 것 같아요.

00:14:02.735 --> 00:14:04.171
지금 보면 오른쪽 눈매가 조금은

00:14:04.271 --> 00:14:08.129
작은 게 느껴지나요,
카메라로 봤을때?

00:14:08.229 --> 00:14:12.164
이 상태에서 라인을 그릴
때는 턱을 든 상태에서도

00:14:12.264 --> 00:14:15.995
눈에 보이지는 않지만, 적절한
두께를 이용해서 깨끗하게

00:14:16.095 --> 00:14:17.767
라인을 그려주시는 게 중요합니다.

00:14:17.867 --> 00:14:21.308
턱을 살짝 들어서 아래를 보시고요.

00:14:22.777 --> 00:14:27.406
보면 이런 넓은 브러쉬 이용해서

00:14:29.565 --> 00:14:34.445
분명히 눈을 뜨면 안
보일 아이라인이지만

00:14:34.545 --> 00:14:39.450
얇게 연결해서 채워줍니다.

00:14:39.550 --> 00:14:42.661
지금 이 행동은 굉장히
중요한 건데요.

00:14:42.761 --> 00:14:47.026
눈을 떴을 때 안 보이는데 굳이
라인을 그려야 되냐 하시지만

00:14:47.126 --> 00:14:50.111
눈을 깜빡깜빡 거리잖아요.

00:14:51.026 --> 00:14:53.623

그때 이 라인의 힘이
살아있기 때문에

00:14:53.723 --> 00:14:55.387
눈이 또렷하고 커 보일 수 있어요.

00:14:55.487 --> 00:14:58.734
그러니까 눈을 떴을 때 안
보이더라도 깔끔하게 라인을

00:14:58.834 --> 00:15:02.459
브라운 계열로 메꿔주시면 눈매를 더
커 보이게 할 수가 있습니다.

00:15:02.559 --> 00:15:06.806
이 상태에서 이런 꼬리가
실수를 할 수가 있어요.

00:15:06.906 --> 00:15:09.939
왜냐하면, 저는 전문가여서 괜찮지만

00:15:10.039 --> 00:15:12.531
하면서 실수를 할 수 있는
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.

00:15:12.631 --> 00:15:13.930
도구를 사용한다는 것 자체가.

00:15:14.030 --> 00:15:20.915
그럴 때는 과감하게
면봉 하나를 든 다음에

00:15:21.015 --> 00:15:23.505
마르기 전에 수정을 해주시면
돼요, 모양을 감싸면서.

00:15:23.605 --> 00:15:27.063
지금 라인이 눈매를 봤을
때도 이상한 부분이 있으면

00:15:27.163 --> 00:15:29.956
이렇게 닦아내시면 돼요.

00:15:30.056 --> 00:15:32.467
그런데 중요한 건
아이라인이 마르기 전에

00:15:32.567 --> 00:15:35.976
수정을 해주시면 면봉
하나만 있으시면 돼요.

00:15:37.292 --> 00:15:42.127
한 이 정도 길이에서
딱 정리를 해보니까

00:15:42.227 --> 00:15:45.139
금방 자기 눈매에 맞는
아이라인이 완성됐어요.

00:15:45.239 --> 00:15:50.302
저 한번 보시고 턱을 살짝
들어서 보고 정면을 보시고

00:15:50.402 --> 00:15:54.195
이 정도까지 그려준
상태에서 메이크업은

00:15:54.295 --> 00:15:56.875

리터치가 굉장히 중요하기
때문에 어느 정도

00:15:56.975 --> 00:16:00.298
완성이 됐을 때 한 80, 90%
정도 완성이 됐다고 하면

00:16:00.398 --> 00:16:02.941
바로 그 다음 단계로
넘어가시면 됩니다.

00:16:03.041 --> 00:16:07.800
이 상태에서 마지막은 마스크라를
한번 해보는 건데요.

00:16:10.190 --> 00:16:14.743
일단 면접용 메이크업에서는
너무 과하지 않는 나의

00:16:14.843 --> 00:16:18.828
본모습을 보여주는 게 중요할 것
같다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.

00:16:18.928 --> 00:16:22.341
레쉬로 아찔하게 세우는
속눈썹을 연출하셨다면

00:16:22.441 --> 00:16:25.181
마스크라도 깔끔하게.

00:16:26.180 --> 00:16:30.112
제가 지금 보면 뭉침 없이
되게 도톰한 술을 꺼냈는데요.

00:16:30.212 --> 00:16:33.525
이런 마스크라가 좀
깔끔하게 나의 레쉬의

00:16:33.625 --> 00:16:34.960
개성을 살려주는 그런 마스크라예요.

00:16:35.060 --> 00:16:39.225
그런데 요즘에 시중에 마스크라가
엄청 많이 나와 있습니다.

00:16:39.325 --> 00:16:42.758
마스크라 전문가들은
다양하게 쓸 수 있어요.

00:16:42.858 --> 00:16:47.392
하지만 우리 일반 여성분들은
요즘에 나온 마스크라 저도

00:16:47.492 --> 00:16:50.586
테스트를 해보면 다
좋은 것 같아요.

00:16:50.686 --> 00:16:53.465
일단 남들이 좋다고
하는 유명한 거 있으면

00:16:53.565 --> 00:16:57.336
한 번 써보는 거 추천드립니다,
한 번 써보세요.

00:16:57.436 --> 00:16:59.269
안 하는 것보다 나은 것 같아요.

증명사진 면접 메이크업

00:16:59.369 --> 00:17:02.557
일단 하늘을 한번 보시고요.

00:17:02.657 --> 00:17:06.935
밑에 부분에 레쉬를
발라서 눈매를 또렷하고

00:17:07.035 --> 00:17:09.926
예뻐 보이게 연출을 해주고요.

00:17:10.220 --> 00:17:14.162
그다음에 밑에 레쉬를
정면을 본 상태에서

00:17:15.428 --> 00:17:19.597
속 안에 제일 안쪽 깊숙이
밀어 넣은 다음에

00:17:19.697 --> 00:17:29.037
빗질을 하듯이 아찔한
속눈썹을 연출해줍니다.

00:17:30.476 --> 00:17:35.162
이렇게 했더니 속눈썹을 제가
뷰러로 아찔하게 올려놨더니

00:17:35.262 --> 00:17:38.314
속쌍꺼풀이라서 위에
자꾸 닿을 수 있어요.

00:17:38.414 --> 00:17:42.001
그러면 면봉 하나면 됩니다.

00:17:42.101 --> 00:17:47.157
마르기 전에 턱을 살짝 들어서
아래를 보시면 마르기 전에만

00:17:47.257 --> 00:17:50.176
이렇게 한 번씩 닦아주시면 돼요.

00:17:50.276 --> 00:17:53.686
어떤 메이크업이든지
마르기 전에 수정하시면

00:17:53.786 --> 00:17:56.920
조금 더 빨리 쉽게 정리를
하실 수가 있습니다.

00:17:57.020 --> 00:18:01.584
이렇게 해서 나의 개성과
눈매를 파악한 후에

00:18:01.684 --> 00:18:03.783
기본 메이크업에 충실한 다음에

00:18:03.883 --> 00:18:06.868
치크 메이크업으로
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

00:18:06.968 --> 00:18:09.428
치크 메이크업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

00:18:09.528 --> 00:18:12.469
자연스러운 혈색을 주기 위해서
흔히 파우더 볼 터치

00:18:12.569 --> 00:18:14.857
많이 사용하시는데

파우더 타입이 일단

00:18:14.957 --> 00:18:19.279
초보자들도 하기 되게 쉬워요,
도구를 이용해서 바르기 때문에.

00:18:19.379 --> 00:18:24.198
그런데 양 조절만 잘하면
크림 타입 블러셔가 훨씬 더

00:18:24.298 --> 00:18:25.822
자연스럽고 쉽습니다.

00:18:25.922 --> 00:18:28.684
증명사진이라든지 이런
면접 메이크업에서는

00:18:28.784 --> 00:18:32.449
실제로 마주 봐야 되는
상황으로 대처를 하잖아요.

00:18:32.549 --> 00:18:34.979
메이크업이 절대 과해
보이지 않습니다.

00:18:35.079 --> 00:18:37.354
일단 양을 조절하는 방법을
제가 좀 알려드릴 건데요.

00:18:37.454 --> 00:18:39.162
이건 크림 블러셔예요.

00:18:39.262 --> 00:18:43.195
손에 온기를 이용해서
골고루 일단 묻힙니다.

00:18:43.295 --> 00:18:46.782
골고루 묻힌 다음에 손등이
저희는 팔레트예요.

00:18:46.882 --> 00:18:49.876
손등에 양을 한번 조절해보세요.

00:18:49.976 --> 00:18:52.916
색깔이 이런 컬러구나.

00:18:53.016 --> 00:18:54.512
이 정도는 나도 쓸 수 있겠다.

00:18:54.612 --> 00:19:00.973
색깔의 힘을 확인하신 다음에
발라야 되는 위치에

00:19:01.073 --> 00:19:02.090
먼저 발라주는 거예요.

00:19:02.190 --> 00:19:03.861
고개를 살짝 돌려보시고.

00:19:03.961 --> 00:19:06.370
우리 광대를 감싸면서
혈색이 들어가잖아요.

00:19:06.470 --> 00:19:10.582
그러면 광대에 혈색을
묻혀주는 겁니다.

00:19:10.682 --> 00:19:12.929

거울로 봤을 때 티 많이 나나요?

00:19:13.029 --> 00:19:13.493
-아니요.

00:19:13.593 --> 00:19:14.276
-안 나죠?

00:19:14.376 --> 00:19:15.782
이게 양 조절이에요.

00:19:15.882 --> 00:19:17.862
여기에서 색깔의 티가 안 났을 때

00:19:17.962 --> 00:19:21.264
한 번 더, 한 번, 두
번, 세 번, 네 번.

00:19:21.364 --> 00:19:23.620
광대를 감쌌는데 티 나나요?

00:19:23.720 --> 00:19:24.171
-네.

00:19:24.271 --> 00:19:25.072
-조금 티 나죠?

00:19:25.172 --> 00:19:26.661
이렇게 양을 조절하시면 됩니다.

00:19:26.761 --> 00:19:29.110
그러면 실수하지 않습니다.

00:19:29.210 --> 00:19:34.424
그 상태에서 광대를 감싸주면서
혈색이 어디에 들어가 되는지

00:19:34.524 --> 00:19:40.760
확인해본다면 이 광대를 감싸는 바로
뼈 윗부분에 발라주시면 돼요.

00:19:40.860 --> 00:19:45.283
왜냐하면, 혈색이 들어오고
나서 어두운 색이딩이라는

00:19:45.383 --> 00:19:48.412
그림자가 저지면서 입체감이
생기는 거거든요.

00:19:48.512 --> 00:19:51.440
그런데 우리 동양인 얼굴에서 보면

00:19:51.540 --> 00:19:55.191
광대가 다 도드라졌다고 생각을 많이
하시더라고요, 많은 여성분이.

00:19:55.291 --> 00:19:58.318
하지만 오히려 볼 터치를
했을 때 광대가 더

00:19:58.418 --> 00:20:01.486
도드라져 보이는 게 아니라
시각적으로는 시선을

00:20:01.586 --> 00:20:04.631
분산시켜주기 위해 볼
터치를 함으로써

00:20:04.731 --> 00:20:07.645
이 광대가 더 잘 안 보이게
되는 효과가 있습니다.

00:20:07.745 --> 00:20:11.058
원래 내 피부의 색깔이 홍조
빛이 이렇게 예쁘게 색깔이

00:20:11.158 --> 00:20:15.521
올라왔나 할 수 있을 정도로
자연스러운 혈색이 올라왔어요.

00:20:15.621 --> 00:20:17.897
그런데 여기에서도
잊지 말아야 할 거는

00:20:17.997 --> 00:20:21.093
선생님, 저는 원래 붉은
기가 얼굴에 있어서

00:20:21.193 --> 00:20:22.368
불 터치를 안 해도 돼요.

00:20:22.468 --> 00:20:26.062
하지만 원래 내 피부에서
올라오는 그 선홍빛은

00:20:26.162 --> 00:20:28.705
이렇게 컬러가 예쁘지 않아요.

00:20:28.805 --> 00:20:32.734
그냥 약간 붉고 얼룩덜룩하다는
느낌이 강하기 때문에

00:20:32.834 --> 00:20:35.847
베이스처럼 이렇게 도화지를
만들어놓은 상태에서

00:20:35.947 --> 00:20:38.237
예쁜 컬러를 선택했을 때

00:20:38.337 --> 00:20:40.762
아, 아름답고 좀 어려 보이고

00:20:40.862 --> 00:20:44.389
수줍어 보이는구나, 이게
색조 메이크업의 매력입니다.

00:20:44.489 --> 00:20:49.551
여기까지 완성을 한 다음에 이제
입술을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.

00:20:49.651 --> 00:20:52.633
입술은 일단 과하지는 않으면서

00:20:52.733 --> 00:20:56.471
내 입술 색깔 같지만
뽀랴까 좀 단정하면서

00:20:56.571 --> 00:20:58.879
자신감을 부여할 수
있는 거는 약간의

00:20:58.979 --> 00:21:00.864
붉은색만 섞이면 될 것 같아요.

00:21:00.964 --> 00:21:05.454
그래서 제가 선택한

컬러는 이 컬러입니다.

00:21:05.554 --> 00:21:09.168
약간 핑크빛이 들어가 있는 것
같은데 붉은 레드가 섞여 있는

00:21:09.268 --> 00:21:13.534
컬러를 이용해서 입술을
한번 물들여볼게요.

00:21:15.952 --> 00:21:17.688
컬러가 잘 보이시나요?

00:21:17.788 --> 00:21:20.545
이 컬러를 이용해서 손을 이용해서

00:21:20.645 --> 00:21:22.957
한번 제가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.

00:21:23.057 --> 00:21:25.116
아 해본 상태에서요.

00:21:25.216 --> 00:21:29.935
전체적으로 입술에 골고루 묻을 수
있게끔 톡톡톡 두들겨줍니다.

00:21:34.258 --> 00:21:38.126
전체적으로 입술에 발라주시긴 하되,

00:21:38.881 --> 00:21:42.183
나중에 손으로 입술 라인에 경계선이

00:21:42.283 --> 00:21:44.601
지지 않게끔 퍼주기는 할 거거든요.

00:21:44.701 --> 00:21:48.104
이렇게 톡톡톡 두들겨주시면 돼요.

00:21:50.780 --> 00:21:54.764
이렇게 경계선을 없애주고.

00:21:56.475 --> 00:22:01.541
반대로 입술 라인까지
혹시 많이 번져났거나

00:22:01.641 --> 00:22:07.666
너무 또렷한 선이 생겼을 때는 째.

00:22:07.766 --> 00:22:08.946
이것만 있으면 됩니다.

00:22:09.046 --> 00:22:10.492
이게 뭐죠?

00:22:10.592 --> 00:22:11.277
-면봉.

00:22:11.377 --> 00:22:14.766
-면봉을 이용해서 라인을
한번 정리해보도록 할게요.

00:22:15.212 --> 00:22:19.242
이렇게 입술 라인까지 너무
또렷하게 선이 생긴 부분은

00:22:19.342 --> 00:22:23.958
면봉으로 이렇게 살살살
닦아주시면 소프트해지거든요.

증명사진 면접 메이크업

00:22:24.058 --> 00:22:27.613
또렷한 인상을 주는 것보다는
내 혈색을 주는 정도로 해서

00:22:27.713 --> 00:22:29.722
마무리를 하고요.

00:22:29.822 --> 00:22:32.669
입술은 항상 촉촉해야 됩니다.

00:22:32.769 --> 00:22:35.549
특히 실제로 보여지는
이런 면접 메이크업에서는

00:22:35.649 --> 00:22:40.329
입술의 촉촉함은 깔끔한 이미지를
완성시켜주는 수단이거든요.

00:22:40.429 --> 00:22:46.512
그래서 투명한 립글로스로
마무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.

00:22:47.433 --> 00:22:55.655
립글로스도 손을 이용해서
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.

00:22:55.755 --> 00:22:59.960
이런 립글로스도 립스틱이랑 다르게
약간의 퍼짐이 있기 때문에

00:23:00.060 --> 00:23:03.050
양을 너무 많이 하시면 안 돼요.

00:23:03.150 --> 00:23:09.891
양을 조절해서 건조한 부분이
어딘지 살짝 발라주시고

00:23:09.991 --> 00:23:11.486
아, 해보세요.

00:23:11.586 --> 00:23:15.565
필요한 부분이 어딘지
건조함을 달래주면 됩니다.

00:23:16.343 --> 00:23:20.178
이렇게 한 다음에 전체적으로
속쌍꺼풀을 정리하는 방법을

00:23:20.278 --> 00:23:26.159
하나 또 알려드린다면 아이라인을
제가 이렇게 아찔하게 그렸잖아요.

00:23:26.759 --> 00:23:32.318
이렇게 그린 아이라인에 삼각형
부분이 어디인지 확인한 다음에

00:23:32.418 --> 00:23:35.832
언더라인을 이제 마무리를
한번 해볼게요.

00:23:41.349 --> 00:23:43.791
지금 이 삼각형이 보이시나요?

00:23:43.891 --> 00:23:46.044
이 삼각형을 제가
다시 한번 메꿨어요.

증명사진 면접 메이크업

00:23:46.144 --> 00:23:50.322
아까 초반에 제가 말씀드렸지만,
메이크업은 한 80, 90%에서

00:23:50.422 --> 00:23:53.119
완성됐다고 하면 다음 단계로
넘어가라고 했잖아요.

00:23:53.219 --> 00:23:56.276
지금 넘어가고 넘어가고 넘어가서
입술까지 완성이 됐는데

00:23:56.376 --> 00:23:59.707
이 상태에서 면접 메이크업은
한 번의 체크가 필요합니다.

00:23:59.807 --> 00:24:04.998
여기서 라인을 봤을 때 이 빈
삼각형을 한 번 더 터치해줘서

00:24:05.098 --> 00:24:06.692
빈 부분을 메꿔주고요.

00:24:06.792 --> 00:24:09.628
라인이 연장된 부분에
지금 밑에 라인은

00:24:09.728 --> 00:24:11.440
딱 닫힌 느낌이 들잖아요.

00:24:11.540 --> 00:24:17.838
이 부분은 깔끔하게
일단 번지지는 않았는지

00:24:17.938 --> 00:24:21.816
번진 부분이 있으면 면봉으로
정리를 하신 다음에

00:24:25.923 --> 00:24:29.470
이런 조그마한 브러쉬에
다크 브라운 섀도우를

00:24:29.570 --> 00:24:36.395
한번 찍어서, 다크 브라운
섀도우를 하나 찍어서

00:24:36.495 --> 00:24:38.923
마무리를 한번 해볼게요.

00:24:39.023 --> 00:24:43.130
천장을 보시고, 이 라인이
연장선이 된 눈의 크기가 커진

00:24:43.230 --> 00:24:46.338
이 연장선 밑에 부분에
또 삼각형이 있어요.

00:24:46.438 --> 00:24:54.898
이 삼각형을 터치해서 어색하지
않게 마무리를 해주시면 되고요.

00:24:55.518 --> 00:25:01.562
또 아이라인으로 깊이를 줬다면
눈앞에 하이라이트가 들어갔을 때

00:25:01.662 --> 00:25:05.472
어두운 컬러와 입체감이 생길
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

증명사진 면접 메이크업

00:25:05.572 --> 00:25:11.807
깔끔한 이런 밝은 하이라이트
컬러를 눈 앞머리에 마무리해서

00:25:11.907 --> 00:25:15.857
애교살이 도톰하게 올라온
듯한 효과를 한번 줘볼게요.

00:25:15.957 --> 00:25:21.089
이 부분 하고 눈이
약간 번짐이 있는

00:25:21.189 --> 00:25:23.734
라인까지가 애교살이 있는 부분이어서

00:25:23.834 --> 00:25:28.895
거기에 밝은 컬러를 이용해서
가볍게 터치해 줄게요.

00:25:33.806 --> 00:25:38.225
이렇게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
부족한 부분까지 리터치를 해서

00:25:38.325 --> 00:25:40.988
메이크업이 완성됐습니다.

00:25:41.088 --> 00:25:47.362
지금까지 증명사진 면접
메이크업을 보여드렸습니다.